

시론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광주유학대학장

정치의 실종,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자

외신은 세계의 최강대국이자 부자나라인 미국이 가까스로 정부의 채무상환 불가능(디폴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元)화가 맹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권 국가인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혼란을 생각할 때 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평생을 정치학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필자에게는 이러한 디폴트의 해결이 주는 경제적 영향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부채 한도'는 미국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약 3조4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엄격한 3권분립 체를 채택하면서도 '의회주의'를 표방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식 정치체제의 산물인 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정부와 의회간의 대립은 미국의 정치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고, 특히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상원

에서는 다수당이긴,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까닭에 야당의 협력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미국과 달리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고 있고,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과 야당간의 타협과 협조는 더욱 절실한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국민들에게 '대화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는 실종되고,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두 대의 기관차가 고속으로 질주하는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양극화 파동이 그것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 데에도 야당은 법안의 내용을 두고 행정부 및 여당과 협상을 전제하는 대신 법안 통과를 강행하였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간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의 경우 직접적 당사자인 간호사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군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까닭에 이들의 의견과 입장은 어떠한지를 경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좀 더 깊은 논의와 대화와 전개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역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법안은 통과되었고,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진지한 협상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지 못하

였다. 말 그대로 정치의 실종인 것이다.

여기에서 볼 때 법안통과를 강행한 야당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모두 보나 다 합리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였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의 수장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디폴트상황을 막기 위해 수시로 전화하고, 타협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하원이 정부의 채무상환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공약인 '식량보조금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지출을 공화당 요구대로 축소하기로 합의 하였다. 문자 그대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또다시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정부-여당과 타협 없이 통과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은 '기계적 놀음'이 정치라고 할 수가 없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권한이 행사 되는데도 금도(糞道)가 있어야 하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여소야대 현상이 지속될지 여대야소 상황으로 바뀌게 될지 국민들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치가 실종되어서는 정치안정(政治安定)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社說

코로나 긴 터널 지나 활력 넘치는 징검다리 연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5일 간 권고로 바뀌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풀렸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됐다. 3년 4개월, 아등고 긴 터널을 지났다.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은 징검다리 연휴, 시민들은 새로운 활력에 넘쳐 있다.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 밑으로 내려왔다. 신규 및 60세 이상 확진자가 소폭 감소하고,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가 증가 중이나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계는 계속해야 한다. 만일의 재유행 사태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1천명 대로 코로나 발생이 꾸준하고 최근 독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까지 무사히 지나야 한다.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고위험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긴장감을 가져

야하겠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발표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다. 입원 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 등 지원과 함께 선별진료소, 코로나 지정 병상, 원스톱 진료 기관 등 대응 시스템도 그대로다.

그토록 바라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다. 코로나를 거의 극복했다. 내년 봄에는 '완전한 엔데믹'에 도달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사람 2m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였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가족과 이웃,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비상 상황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출현할 우려가 크다. 미래의 팬데믹을 잘 대비해야 한다. 안정적인 방역 체계 구축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은 서남권 발전 기폭제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신 프로젝트는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대교 연결, 무안-남악-오룡을 잇는 트램 도입을 담았다.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된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조속 건설하고, 대불산단대교로 목포까지 연결해 아우토반 효과를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아우토반은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며, 독일처럼 젊은이들이 속도를 즐기고, 이색 관광지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1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도 예상된다. 사업비는 총 2조 7천900억원 규모로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국가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친환경 전담형 트램은 지역 명소와 주요 거점을 잇는 새 교통수단으로 사업비는 4천억원 정도다.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고 있는 서남권은 섬과 바다, 갯벌 등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지녔다. 하나카드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한해 외국인 관광객이 드 이용실적 증가를 전국 1위다. 전남도는 관광 분야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미분양 산업단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목포를 중심으로 한 무안·신안·함평·완도 등 9개 시·군과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대적인 디지털 인프라, 저탄소 고효율에너지 등 미래형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에도 탄력을 불고 있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발표식에는 김영록 지사, 해당 지자체인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가 참석했다. 미래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만큼 관광객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체류형 기반 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하게 된다.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신 프로젝트는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대교 연결, 무안-남악-오룡을 잇는 트램 도입을 담았다.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된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조속 건설하고, 대불산단대교로 목포까지 연결해 아우토반 효과를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아우토반은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며, 독일처럼 젊은이들이 속도를 즐기고, 이색 관광지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1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도 예상된다. 사업비는 총 2조 7천900억원 규모로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국가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친환경 전담형 트램은 지역 명소와 주요 거점을 잇는 새 교통수단으로 사업비는 4천억원 정도다.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고 있는 서남권은 섬과 바다, 갯벌 등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지녔다. 하나카드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한해 외국인 관광객이 드 이용실적 증가를 전국 1위다. 전남도는 관광 분야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미분양 산업단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목포를 중심으로 한 무안·신안·함평·완도 등 9개 시·군과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대적인 디지털 인프라, 저탄소 고효율에너지 등 미래형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에도 탄력을 불고 있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발표식에는 김영록 지사, 해당 지자체인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가 참석했다. 미래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만큼 관광객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체류형 기반 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하게 된다.

자치칼럼



이계양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품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얼마 전 후배인 김모 변호사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다. 약간 썩스러운 표정과 태도로 "제가 쓴 글을 모은 책인데 읽어보세요" 하며 건넸다. '진정성과 공감 능력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다. '교사불여졸성'이라고 친필로 적은 '불편한 동행'이라는 책이었다.

교사불여졸성(巧詐不如拙誠). '교사'는 기교사위(機巧詐偽), '졸성'은 본질성실(拙誠實)의 준말로 교묘한 거짓(巧詐)은 졸렬한 성실(拙誠)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화려한 언변으로 위장한 행동으로는 투박하고 어리석고 졸렬하지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 편에 나오는 두 이야기다.

중국 위(魏)나라 문후(文侯)가 악양(樂羊)을 장수 삼아 중산국(中山國)을 공격할 때였다. 당시 악양의 아들 악서(樂舒)는 중산국의 관리로 있었고, 이에 중산국의 왕은 악서를 인질로 삼고 공격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악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총공격을 했다. 화가 난 중산 국왕은 그 아들을 죽여 머리와 몸통이로 국을 끓여 악양에게 보냈다. 악양은 태연하게 그 국을 들이켜고는 흔들림 없이 공격해 결국 중산국을 함락시켰다. 이에 문후가 악양을 칭찬하며 "악양이 나 때문에 자식까지 먹었군"이라 하자,

신하가 "자기 자식의 살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들 먹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악양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문후는 그 공을 치하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늘 그를 의심했다고 한다.

노(魯)나라 맹손씨(孟孫氏)가 새끼 사슴 한 마리를 사냥했다. 어미 사슴이 슬피 울며 따라오자, 신하인 진사파(秦西巴)는 새끼를 놓아주었다. 이에 맹손은 크게 노하여 진사파를 내쫓아버렸다. 그 얼마 후 맹손은 진사파를 다시 불러 아들의 스승으로 삼았다. 맹손의 마부가 의아해 물었다. "지난번에는 죄를 물어 내쫓으시더니 지금 아드님의 사부로 삼으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손은 "새끼 사슴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데 내 아들에게 할부로 하겠느냐? 그래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한비자는 "교묘한 속임수는 훌륭한 진실보다 못하다(巧詐不如拙誠)". 악양은 공을 세웠지만 의심을 받았고, 진사파는 죄를 지었지만 더욱 신뢰를 받았으니, 한 사람은 인(仁)하고 한 사람은 불인(不仁)했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 공자가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자에게는 인(仁)이 드물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언젠가 지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 공동체마을의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진 성미산마을에서다. 처음 성미산마을을 시작했던 주민 중 한 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나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맨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같이 사는 일은 불편한 일이고 그 불편으로 인해 싸울 수밖에 없다. 다만 싸우면서 다시 만나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성

공적인 마을공동체를 이루어낸 것이다. 후배의 책 제목처럼 불편한 동행 끝에 공동체가 된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의 속성은 불편하다는 것과 그대로 같이 산다는 것이다. 같이 산다는 것은 불편을 견뎌내는 일이다. 어찌 날마다 희희낙락하는 날만 이어지겠는가. 사람마다 잘하는 것, 남는 것, 많은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 부족한 것, 적은 것도 많다. 누구에게나 있는 잘못하고, 부족하고, 적은 것을 탓하고 지적하는 일은 제 얼굴에 침 뱉기이다. 오히려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불편한 것들을 품고 안아야만 한다. 부부의 백년해로도, 이웃과 함께 사는 일도 마찬가지다. 존중과 배려로 배우자와 이웃을 도우려는 진정한 마음이 동행의 전제이다. 후배 어머니의 말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들끼리만 불편한 동행이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책에 나오는 진정성과 공감 능력은 공동체의 속성이며, 공동체를 가꾸고 이루는 진수다.

실제로 책의 곳곳에는 필자의 진정성과 공감 능력에 대한 고민이 배어 있었다. 차이와 차별, 속물적 근성과 양심, 선과 악, 법과 도덕, 피고인과 피해자, 권리와 의무, 현실과 이상, 이론과 실제, 상식과 정의, 다른 가치관과 상황 사이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인이 갖는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야, 항상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잊지 말아라.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다시 새긴다. 불편하지만 졸성(拙誠)을 통해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기 위해서.

독자투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6일은 제8회 현충일이다. 현충일 당일에는 각 가정과 학교에서는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현충일을 국민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애국심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나, 슬한 고비 때마다 수많은 애

국선열이 목숨을 바쳤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가를 새롭게 배우고 알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돼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전쟁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 같은 침략행위를

언제 또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화합하고 국력을 키워야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후손으로서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

(정기연·前 영암신복초등학교 교장)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폐업 정리

주경림



버스 정류장 앞, 웃가게 유리창에  
"폐업 정리"  
크게 써 붙였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최신 유행하는 옷맵시를 바라보며  
눈요기하기가 즐거웠는데  
웃가지가 다 팔려 행한데도 문 닫지 않았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 보았더니  
"폐업 정리" 밑에 잔글씨가 보인다  
"마네킹도 팝니다"  
들여다보는 내 얼굴이 겹쳐 비쳤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슬피 울었다  
마치 내 영혼을 할값에 내놓은 것 같아.

(시집 '비비추의 사랑 편지', 문예비디, 2023.)

[시의 눈]

집 앞 공터엔 폐업 60-80%로 인화 정리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아웃도어와 신발, 심지어 신사복까지 다만 원에 땀처리합니다. 또 있네요. 그 옆엔 인덕션 냄비세트, 티타늄 프라이팬 등을 모아놓고 역시 만원이라네요. 코로나로 장사가 안돼 재료 값도 못 건지는 듯합니다. 다들 그냥 그냥 버텨왔다고 해요. 한데, 그런 걱정은 상관없다는 듯 미소만 짓는 마네킹이 눈에 띄니다. 보니, 그도 매매하는군요. 허, 이리다 주인마저 팔지 모르겠네요. 난 싸게 사려는 의도는 놔두고 이쁜 마네킹을 쳐다보다가 아내에게 혼이 납니다. 아따, 목디스크 걸리겠네요. 허, 나는 50% 할값에 팔릴 뻔한 정신을 얼른 회수해 옵니다. 주경림 시인은 서울에서 1992년 '자유문학'으로 등단. 시집 '풀꽃우주'(2009), '빠꾸기장'(2020)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역사의 유물들로부터 자기의 빛살을 새기듯 미학적으로 표상화해 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